

PEOPLE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박용화 남구의회 부의장 광주양림교회에 감사패 받아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이 최근 광주양림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를 수여한 양림교회는 “박 부의장은 평소 남구의 지역민에게 남다른 애정을 갖고 봉사활동을 이어왔다”며 “형제의 우애로 힘입은 자들의 어려울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왔다”고 평가했다.

박용화 부의장은 “감사패는 주민들에게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장성교육지원청 중국 학생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장성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장성성산초등학교와 중국 항주시 경화소학교와의 '2025 글로벌전남 국제교류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을 열어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국제교류는 한국과 중국 학생이 서로의 언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성산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국 항주시 경화소학교 학생 17명은 이중언어 발표 수업과 합동 공연, 홈스테이 활동, 문화유산 체험 등을 하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수성과 역량을 드러냈다.

정선영 교육장은 “이번 국제교류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특별한 교육의 장이다”며 “여러분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nh6699@gwangnam.co.kr



남부경찰, 학교폭력예방 교실 운영

광주 남부경찰과 광주지방법원경찰은 9월 동일미래고등학교에서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모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체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심의위원 역할을 하는 학생이 언론에 공개된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입장에서 심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남부경찰 청소년보호과는 학교폭력 신고가 다수 접수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실제 심의위원회 운영과 유사한 방식의 체험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중득 남부경찰서장은 “올해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기존 주입식 교육을 넘어 학생 스스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정현택 목포상의 회장, '목포시민의 상' 수상

김 산업 전범 국내의 시장 개혁 지역경제 발전 기여 지역 일자리 창출·인재양성·사회공헌 활동 등 앞장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대창식품 대표이사)이 지난 46년간 김 산업에 전념하며 국내외 시장 개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제63회 목포시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현택 회장은 1979년 대창상회를 창립한 이후 현재 ㈜대창식품을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92년 '100만불 수출탑'을 시작으로 지난해 '7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통해 국가 수출산업과 지역 김 산업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대통령 표창·산업포장·장관 표창 등 다수의 정부 포상을 받으며 모범적인 기업가로 평가 받아 왔다.

정 회장은 지역경제단체 활동에서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30여년 전 목포상의의 의결부에 참여한 이래 지난해 제25대 회장에 선출돼 회원을 이끌며 목포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왔다.

특히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삼진항 국가어항 예비항 선정, 무안반도 통합 여론 조성, 목포신항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제안, 대양산단 전력망 확충 등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며, 최근 실종자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스마트태그를 목포경찰서에 기부하는 등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도 힘썼다.



아울러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달산분축제, 목포해상W쇼, 목포항구축제 등을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정 회장은 기업경영을 통한 고용창출 뿐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여성·장애인·청년·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용해 지역 일자리 확대에 힘썼으며, 직원 복지 향상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해 2016년 아너소사이터티 전

남 50호 회원, 2023년 나눔리더 전남 36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지난 8년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1억2500만원, 공생원·공생재활원에 9년간 4400만원을 기부했으며, 복지·장학재단 등에도 매년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복지와 인재양성에 헌신해왔다.

한편, ㈜대창식품과 목포수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김 가공공장을 착공,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공장이 완공되면 수출 물량 확대와 목포수협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63회 목포시민의 상 시상식은 10월 1일 열리는 목포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목포=성명준 기자 tjdaudvns@gwangnam.co.kr

(주)광일식품, 나주시에 1000만원 기탁

인재육성 동참...꿈·미래 나눔 실천

(주)광일식품이 인재육성기금 1000만원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부하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1980년대 나주 남평읍에 설립된 (주)광일식품은 빵과 전통과자 등을 생산하는 식품업체다.

기금은 학생에게 장학금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예절교육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조문호 대표는 “지역에서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학생들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며 “인재 육성과 나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주)광일식품의 꾸준한 나눔은 나주 교육의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며 “기부문화 확



산과 함께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재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과 함께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116억원이 모금됐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호우 피해 지원 성금 1억 전달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시청에서 ‘극한호우 피해 지원 직원성금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1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잇따른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방능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뜻을 함께했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해 현황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협력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지원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새마을금고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전성 강화 토론회 비상대책위원회,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 등 논의

광주·전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권기동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 위원 4명, 안세찬 광주전남지역이사, 광주·전남 지역 이사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이 참석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건전성 강화 △위험관리 체계

개선 △회원 신뢰 회복 전략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실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기동 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 금융의 중추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광주디자인진흥원, 도시환경개선 업무협약 체결...공동사업 발굴·추진

광주도시공사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모은다.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와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은 9일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의 전문 분야인 도시개발과 디자인을 활용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디자인 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개발사업 등이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시공사와 디자인진흥원이 서로의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을 이어나가는 출발점”이라며 “공사는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동구, 은둔형외몰이 발굴·지원 업무협약



담양·순창 상생발전 자매결연